

CM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김경수 · 건설교통부 건설관리과장

우선 이 자리를 빌어 한국건설관리학회
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새 천년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와 함께 우
리 주변에서 많은 것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경제 구축과 정보화에 따라 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전자 상거래, 디지털 경제, 지식기
반 고부가가치 산업 등 다소 생경스럽던 전
문 용어들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뚝산업으로 상징되는 전통 산업
이 이제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 중심의 벤
처산업에 자리를 비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산업 환경도 예상보다 빠른 속
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많
은 도전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을 제외한 다른 산업들은 IMF 외환위기 이
전으로 경기를 회복하고 있지만 건설산업
은 이제부터 IMF 관리체제의 영향이 본격
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WTO국제
협약체결에 따른 국내건설시장의 대외개방
으로 건설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
의 물결 속에서 우리 건설산업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종래의 수주위주, 물량위주, 시공기술 중심
의 건설산업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며
생존하기 위하여 디지털 경제, 고부가가치
를 추구하는 지식기반 산업으로 급속하게
변신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새로운 건설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건설
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과 고비용·저효율의 비합리적인 생산시스
템을 개선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
로운 생산시스템의 도입과 적응을 요구하
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생산방식에
의존하던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경
제의 틀 속으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택건설업체에서부터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인터넷사업에 참여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사이버 아파트 건설계획이 발표되기도 합
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새로운 건설

산업의 환경변화 추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아파트의 보급 확산은
기획, 조사, 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을
비롯하여 건설사업의 전과정에 걸쳐 인터
넷, 정보통신기술의 도입과 같은 혁신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건설산
업에서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전자 상거래
화를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건설산업에서의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의 활용은 CAD기법의 활성화에 따른 설계
전산화 및 설계도면의 전산관리가 보편화
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건설자재
등의 전자조달, 전자입찰, 건설기술자의 관
리 및 업체실적의 전산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며 결국 경영정보관리(MIS)와 건설
CALS로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사관리 측면에서는 현장CCTV와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관리가 가능하게 되
고 3-D형, 노동집약적인 공사현장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시공이 도입될 것으
로 예측됩니다.

이와 같은 건설산업에서의 정보화, 디지
털화는 발주자의 정보 독점에 따른 불공정,
불평등 건설관행으로부터 정보의 공유와
투명한 거래절차 확보를 통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공사관행이 정착되는 생산과정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Cash flow를
중시하는 매출 증대위주의 산업풍토는 수
익위주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변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건설산업의 환경변화에 적응
하기 위해서는 현행 품질관리위주의 단순
한 건설관리방식으로는 불가능하며 시간과
비용 및 품질을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CM
방식에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건설관련업체는 경영방식으로서의 CM을,
발주자는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형태
또는 관리방식으로서 CM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공공발주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CM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CM세
부시행기준을 마련하는 등 CM 활성화 기

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사업추진에 있어 CM으로 핵심 분야를 통합·관리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공사품질은 물론, 비용절감과 공기 단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설산업 구조도 사업관리, 시공, 이들을 지원하는 소규모 전문 벤처기업형태의 고부가가치 사업영역으로 관련 업계가 통합·발전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CM을 통하여 물량중심, 결과확인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건설산업의 특성인 과정을 중시하는 체계적인 접근으로 사업참여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WIN-WIN의 건설풍토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건설산업은 부실과 불신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건설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와 같은 건설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CM 활성화대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중 개정할 계획인 건설기술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 건설공사 발주청에서 CM발주시 필요한 CM대상공사, CM업무범위, CM대가산정 기준, CM자격 및 업체선정방법, 책임감리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며 아울러 발주청과 CM업체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CM표준계약서, 업무절차서 등도 제정하여 보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를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는 대학교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CM 대가산정기준 및 업무범위, 업체선정방법 등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 4~5월중에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합리적·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설계VE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시공단계에서는 계획대비 실적을 통합관리하는 EV기법의 적용을 제도화하는 등 공공발주 건설공사가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CM인프라구축을 위한 CM교육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해 교육부, 노동부 등에 대하여 각급 대학에서 CM학과를 신설하거나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건설기술교육원 등 건설기술교육기관에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CM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CM방식에 의한 사업 발주시 직접적으로 CM업무에 관련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투자기관의 건설공사 관련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CM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민간과 공공부분의 종합적인 CM인프라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건설산업의 전망과 변화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CM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CM 활성화를 위한 제도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도록 탄력적이며 융통성있는 제도로 우리 건설산업의 발전에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관련제도의 보완과 CM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CM방식에 의한 공사발주체계가 정비되는 대로 대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CM시범발주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CM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CM 전문가들의 모임인 건설관리학회 창립을 축하하고, 앞으로 CM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학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우리 나라 CM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